

지역 소식통



정읍시·제8098부대 정읍대대 통합감시 체계 구축 업무 협약

정읍시와 육군 제8098부대 정읍대대(대대장 최성영)는 최근 시청 시장실에서 통합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영상 정보를 공유, 상호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협약서는 ▲군 연료관 파견에 관한 사항 ▲상황 발생 시 영상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 일일현황과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관·군 간 영상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며 "이를 토대로 원활하고 성공적인 항도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정읍시가 지난 설 연휴기간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아 호응을 얻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과 고객을 찾는 귀성객들이 보다 산뜻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는 설 연휴기간 시내는 물론 읍면지역 주요 도로변 등에 내걸린 각종 불법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했다.

특히 사단법인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함께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고 기관·마을 등에서 내건 고향 방문 환영 문안을 담은 현수막을 비롯 정장과 시민단체의 불법 현수막도 정비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기타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함에 따라 정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일선 정읍소방서장

정다운요양병원 현장지도

김일선 정읍소방서장은 1일 오전 정읍내 노유자시설인 정다운요양병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 기간 관서장 현장행정 방문 계획에 따라 대형화재취약대상·노유자시설·외곽센터 등 23개 대상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화재예방 강화와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 및 대피시설 확인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병인 앞 도로 불법주정차 근절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실태 확인 ▲안전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이다.

관서장의 지속적인 현장방문 행정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함은 물론, 시설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소방서, 야생멧돼지 포획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최근 김제시 금산면 인근 산에서 야생멧돼지 1마리를 포획했다.

이날 김제소방서 119구조대는 금산사내 텃밭스테이 뒷산에서 멧돼지가 울무에 걸린 상태로 난동을 부리며 등산객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금산사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포획에 앞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주변을 통제한 후 함께 출동한 경찰·유해동물 포획단과 함께 마취총 등을 이용해 길이 1m 30cm, 몸무게 70kg 가량의 멧돼지 포획에 성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제공

김제시 행정지원국 정책방향

문화시민운동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맞춤형 장학사업

하키전용구장 조성

벽골제 유네스코 등재 추진



손삼국 김제시 행정지원국장은 1일 오전 11시 김제시청 부리평룸에서 2017년도 국 소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김제 실현"을 목표로 민선7기 시정현안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주민편의 증진과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손삼국 김제시 행정지원국장은 1일 오전 11시 김제시청 부리평룸에서 2017년도 국 소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김제 실현"을 목표로 민선7기 시정현안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주민편의 증진과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제시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등 9개과 2개 사업소가 속해 있으며 주요 시정시책 추진과 공무원의 인력운영과 배치 각종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취약계층 발굴 보호를 통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인재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손 국장은 이날 첫째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통한 시격(市格) 높이기』를 위해 자랑스러운 김제인 상(像) 정립, 선진시민 의식향상을 위한 친절·질서·청결의 3대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민·관·사회단체가 협력하여 범시민 결의대회와 릴레이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선진 문화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올 한 해에도 거리 청결운동과 청소년 선도, 자원봉사 활성화와 이웃과 인사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김제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둘째 『김제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상 2층, 약 562㎡의 면적으로 건축되는 교육관은 200명 규모의 교육장과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며 자활참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지원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초등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장학』 사업에 대해 김제시는 2007년 단계별 맞춤형 장학사업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다.

넷째 『하키전용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 시민체육공원 내에 전국 규모의 하키대회 유치기 가능한 하키전용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부터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에 착수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경 사전 평가와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관내 4개교(김제고, 김제여고, 김제중, 김제여중) 70여명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김제시의 위상과 명성을 높이는 등 하키가 김제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장소가 부족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섯째 『벽골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과 관련 지역 관공여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추진 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사전절차인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벽골제 잠정목록 등재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4월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명의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각종 연구자문과 지역여론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정책 방향의 흐름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시민욕구를 해결하고 시민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추진

3동 지원 계획... 1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5년간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해야

부안군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반값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3,000만원을 투자하여 3동(동당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이며 지원받은 건물 소유자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입주자에게 5년 간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며 리모델링 가능 여부, 건물상태(노후도), 임대료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빈

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안군은 빈집을 활용한 반값임대주택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063-580-4885)에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클린 김제 청렴 두뇌 깨우자'

김제시, 청렴서약 결의 대회 개최

"김제시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청렴한 생활을 실천수범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클린 김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김제시는 1일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클린 김제 청렴 두뇌 깨우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렴서약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전 직원이 기립한 가운데 벽골제 아리랑사업소 이영석 소장과 민원소통과 이상아 주무관이 선서대사로 나선 결의 대회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사고와 행동으로 부조리 척결과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고 전 청원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약속하

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김제시는 그동안 투명한 정보공개, 컨설팅 중심의 상시 자체 감사,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서약 결의를 기점으로 청렴문화 확산, 부패 유발요인 제거, 청렴행정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복 시장 권한대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더불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모두 잘못된 행정 관행"이라며 "공직자들의 청렴한 마음가짐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정읍시는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정읍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약 9천285개의 사업체가 해당된다.

사업체 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로 해당 시 실시된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13개 항목에서 실시되는데,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년월,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이다.

또 환경산업 활동 여부와 특정 연령대(39세 이하) 종사자수도 특성항목으로 추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과 평가, 지역소득추계(GRDP)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슬레이트 철거 14일까지 신청 접수

김제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지붕 971동을 철거했으며, 올해에는 6억4800만원을 들여 180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가정은 2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기준 160㎡)으로 전문철거업체를 통한 간접적 지원 형식이며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클 경우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J&J GRAPHIC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